

울뜨레아



sj.cursillo@gmail.com

간 사: 정상준(미카엘) 510-912-1662
부 간 사: 노상현(미카엘라) 408-655-9111
총 무: 박종태(프란치스코사베리오) 408-315-8924
빨랑카부: 기강은(크리스티나) 408-335-9521
 채지연(마리아) 408-483-0804
음 악: 최상진(엘리사벳) 408-425-9765
교육부장: 최광섭(요한) 408-497-8526
교육차장: 기현철(베네딕도) 650-759-9776
활동부장: 고응봉(안드레아) 408-202-4562
섭 외 부: 홍인숙(루시아) 408-655-3178



전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 영적 독서:

박해를 각오하여라 (마태 10, 17-22)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묵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반대에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 죄와 죽음을 거슬러 사랑과 일치, 생명과 부활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된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과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기때문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예고는 예수님에게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몸소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이어 박해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한국의 수많은 신앙선조들 또한 무서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끝까지 버텨으며 구원을 얻었고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길에 초대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은 무시무시한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의 박해입니다. 다툼과 미움, 분열과 갈등, 탐욕과 이기심, 세상의 물질만능적 풍조 등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이생애에서 주님의 복음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 ❖ 성체조배
- ❖ 시작성가 (회의실)
- ❖ 시작기도(길잡이 14 쪽)
- ❖ 새로오신분 / 특별 참석자 소개 및 환영
- ❖ 행사 토의 / 각 부서 공지 사항
 - 남성 10 차 주말피정(9/13(목)-16(일)), Holy Redeemer Center(Oakland), 참가비\$250, 신청서 접수중(간사,총무)
 - 길잡이학교 모임; 7/22(일) 오후 4 시, 오클랜드성당.(오클랜드 본당 신부님:바티칸공의회 문헌)
- ❖ 영적 지도: 지도 신부님
- ❖ 아침 기도 (길잡이 15 쪽)
- ❖ 아침 성가
- ❖ 친교 시간

7월 전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8일)

요사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끄는 인물은 단연 '인기 스타'인 것 같다. 그들의 이름을 켜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근황과 생활 구석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 스타는 인기를 먹고 산다. 아니 인기에 죽고 산다. 그러니 생명력이 짧다. 한시적이다.

반면에 청소년들에게 존경하는 영웅이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한다. 존경하는 영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영웅들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늘 공경받는다. 그들은 스타처럼 인기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웅들의 위대한 업적은 어느 시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삶의 지혜로 작용한다. 그들의 삶 자체가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그들은 우리 세대에도 살아있는 것이며, 그래서 항구하다.

영원을 생각하고 하느님 나라를 찾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영웅이 있다. 믿는 이는 인기에 좌우하는 스타가 아니라, 신앙의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신앙 선조들을 기억한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신앙의 귀감이 되는 선구자가 많다. 특히 해마다 7월 5일이 되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대축일을 지낸다. 이날은 신부님이 복자위에 오르신 날로서, 신부님을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실 뿐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였던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의 깊은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였다. 신부님의 가족들도 모두 순교의 영광을 받을 정도로 열심하였다. 1836년 모방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박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지속하고자, 유방제 신부의 인도로 길을 떠나 마카오 신학교에 들어갔다. 1841년 11월 조선교회가 박해 때문에 소식이 끊어지자, 고국의 양들을 걱정하여 여러 차례 의주 방면으로 입국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1843년 중국의 '소팔가자'에서 최양업과 신학공부를 계속하다가, 조선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의 명으로 두만강을 건너 입국을 시도하였지만 또 실패하였다. 다시 돌아가 1844년 부제품을 받고, 1845년 1월 1일 변문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데 성공하였다. 고국에서 선교사 영입 준비를 마친 다음 상해로 되돌아와, 그해 6월 상해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았다. 그리고 8월에 상해를 떠나, 10월 충청도 강경 나바위에 도달하였다.

새 사제로 입국하여, 숨어 지내는 교우들을 찾아 사목하였고, 조선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846년 5월 선교사를 영입할 뱃길을 개척하려고 백령도에 도착하였다. 그러다가 6월 초 관헌에 체포되어, 해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3개월 동안 문초를 받고, 그해 9월 16일 반역죄로 군문효수형을 선고받아 새남터에서 참수되었다.

신부님은 1857년 가경자로 선포되고, 1925년 7월 5일 복자위에 오르셨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 온 교회가 공경하는 성인이 되셨다.

신부님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시며, 최초의 서양학문 유학자이시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사목하셨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25통의 옥중서한을 통해 탁월한 학문의 지혜와 신자들을 배려하는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신부님은 한국인으로서 전통 관습을 가장 잘 이해한 목자이셨다. 또한 관헌들의 온갖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을 모르는 불 같은 신앙으로 모든 후배 사제의 신앙적 귀감이 되셨다.

이렇듯이 신부님은 순교를 통하여 굳건한 신앙을 지켰고 자신이 흘린 피로써 한국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만큼 앞서가신 우리 신앙의 선구자이시기에, 성인의 대축일을 모든 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7월 5일에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지낸다. 이날 교회는 순교자의 용기(제 1 독서)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박해를 뛰어넘는 참된 행복(복음)을 선언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희망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제 2 독서)을 상기시키는 성서 대목들을 봉독한다.

신부님은 한국인 첫 사제로서, 천국에서 한국교회와 특히 후배사제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전구해 주실 것이다. 성인의 축일을 맞아, 여름 날씨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돌보시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해 보자. 우리도 성인을 본받기로 다짐하고 그분의 전구를 구하여 굳건한 신앙의 은혜를 받도록 하자.